

순천강남여고, 제4회 울릉도·독도 역사문화 탐방 실시

‘올바른 역사의식 바로 세우기’ 교사·학생 등 39명 참여

‘독도의용수비대 동아리 협력학교’로 국토 수호 의식 함양

순천강남여자고등학교는 지난 11일~13일, 2박 3일 동안 교사, 학생 등 39명이 참여하는 ‘제4회 울릉도·독도 역사문화 탐방’을 실시하였다. 2017년 ‘제1회 울릉도·독도 역사문화 탐방’을 시작으로 올바른 역사의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교육 활동으로 꾸준히 실시되고 있다.

사전에 울릉도·독도 생태교육 및 역사교육을 진행하고 독도를 방문하여 결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항할 수 있는 논리적인 대처 능력을 갖추고 독도 사랑의 마음을 깊이 새겼다.

특히 순천강남여자고등학교의 학생들은 독도의용수비대 동아리 협력학교로서 독도

의용수비대 기념관을 방문하여 독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독도의용수비대의 활동을 살펴보고 이들의 국토 수호 정신을 이어갈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교내에서도 독도 게시판 운영, 컬러링북 제작, 독도의 날 행사 실시 등 독도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역사 수업을 활용한 지속적인 계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순천강남여자고등학교는 앞으로도 울릉도·독도 역사문화 탐방을 추진하여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기자



광양교육청, ‘온마을 진로진학 상담의 날’ 운영



광양교육지원청이 고교학점제 도입과 입시제도 변화에 따른 진로진학 준비를 위해 광양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진로설계 프로그램 ‘온마을 진로진학 상담의 날’을 진행하였다.

지난 14일 도림미술관에서 광양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이 협업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180여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한 가운데 ‘대입전형의 이해와 대비’를 주제로 한 진로 특강을 시작으로 중학생 대상 자녀와 함께하는 ‘학부모 대상 자녀교육 컨설팅’과 고등학생 대상 ‘학생·학부모 1:1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 등 3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OO중 학부모는 “그동안 막연하기만 했던 자녀의 진로와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는 시간이었고, 고교학점제 등 많은 정보를 얻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광양교육지원청 정중혁 교육장은 “학생들마다 다른 배움의 속도와 관심을 존중하고 학생의 적성과 흥미에 적합한 ‘개별화된 진로진학 컨설팅’을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광양=기동취재본부

전라남도창의융합교육원, 2022년 청소년창의융합탐구대회 개최

학교장·교육장 추천 받은 초·중·고등학생 130명 참가

전라남도창의융합교육원은 지난 12일~13일, 이틀간 전라남도창의융합교육원에서 2022년 청소년창의융합탐구대회 본선 대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청소년창의융합탐구대회는 올해로 40회를 맞는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청소년 과학패이)의 전남지역 대회로 과학전람회, 발명품경진대회와 함께 대표적인 과학대회 중 하나이다.

학교장 및 교육장의 추천을 받은 초·중·고등학생 130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제시된 문제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해결 방안이 관해 토론하는 <과학토론>과 융합적인 요소를 포함한 산출물을 제작하는 <융합과학> 두 종목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대회 한 관계자는 “출전자들이 융합적 사고 능력 및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 및 실천적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중심 과학탐구활동의 장 마련을 통해 미래 창의융합적 과학기술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본선 심사를 통해 뽑힌 금상 수상자에게는 9월에 있을 전국대회 출전 자격이 주어지며, 전라남도창의융합교육원에서는 출전자 일대일 맞춤형 심화 컨설팅을 통해 전국대회 준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전라남도창의융합교육원은 작년 제39



회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비롯해 전남 대표 7명 전원이 전 종목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이룬 바 있다.

김재환기자

나주공공도서관, 진로개발특강 성료

자유학년제 진로 연계 운영

나주공공도서관은 지난 6월 29일 나주 다시중학교를 시작으로 7월 15일 노안중학교까지 7개교에서 자유학년제 진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자유학년제 진로멘토특강은 각 학교에 사전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승무원, 작가, 유튜버, 변호사, 메이크업아티스트, 경찰 등 학생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다양한 직업군을 신청받아 운영했다.

지난 6일 봉황중학교에서는 KBS 뉴스리안,

SBS 접속무비월드 등을 집필하고, 에세이 ‘다독이는 밤’을 저술한 ‘강가희’방송작가를 초청하여 방송작가 진로에 대해 소개 하고, 학생들이 실제 방송 대본을 직접 읽어보는 등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나주중학교 등 6개 교를 대상으로 재심전문 변호사 “박준영”, ‘월송이도 이해하는 자 본론’, ‘외인에 몸서 진심입니다만.’등을 저술한 작가 “임승수”, 44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채채” 등 다양한 직업군의 강사들이 각 학교로 찾아가 강연을 진행했다.

나주=송준표기자

2022. 무안모아 학부모 재능기부단 3기 발대식 개최

학부모의 자발적 교육참여 통한 선순환적 교육공동체 실현



무안교육지원청은 지난 15일 학부모의 자발적인 재능기부 활동과 “내 아이만이 아닌 우리의 아이”를 슬로건으로 하는 무안모아 재능기부단 3기 발대식을 개최한다.

기존 무안학부모연합회의 재능기부 분과에서 시작하여, 2021년 무안모아 학부모 재능기부단(이하 재능기부단)을 출범하였다.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위해 학부모 아카데미를 통한 학부모 교육, 아카데미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관내 유·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 기부 활동을 연계하는 선순환적 무안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25명의 무안모아 학부모 아카데미 보드게임 지도사 양성 수료식을 개최하였으며, 2021년 책놀이독서코칭 전문가 20명 등 전문자격을 갖춘 79명의 재능기부단이 관내 학교, 일로 소년원, 무안 다함께 돌봄센터 등에 교육기부 활동을 실현하고 있다.

무안=이기성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